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3월 10일(금)  
--(음력 2월 19일)--  
Пятница  
10 марта 2023г.  
№ 9 (1202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6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 센터에서 축하행사가 열렸다. (주정부 제공)

## 주 정부, 사할린과 쿠릴 여성 주민들에게 3월 8일 명절 축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6일(월) 체호브 센터에서 축하행사가 열린 가운데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주 두마의 엘레나 카시야노와 의장이 참석한 여성 대표들에게 따뜻한 축사를 전했다. 이날 체호브 센터에 참석한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와 여의사, 여교사, 사회복지 부문의 여성 종사자, 여성 사회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축하했다.

"3월 8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축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장병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축하해 주도록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하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여성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항상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의 동포들을 챙기는 여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여성들은 다양

한 분야에서 일하시며, 높은 성과를 이루고, 사할린주의 모든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명절을 축하드리며, 친애하는 사랑스런 여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라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인사를 전했다.

사할린 주두마의 엘레나 카시야노와 의장은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정말 멋진 명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월 8일은 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명절이 다가올 때면 자연이 깨어나고,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꿈을 세웁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이 모두 이뤄질길 바라며, 여러분에게는 가족의 온정과 평안을, 여러분의 가정엔 사랑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축사 후 참석자들은 '오페라 - 오페라' 극장의 솔리스트인 드미트리 안콥스키의 노래와 '네오페라' 기획 악단으로부터 음악 선물을 받은 가운데 음악인들은 20곡의 노래를 선사했다.

## 쿠릴열도에 경제특구 조성 법안 채택

3월 1일(수) 국가 두마는 2차와 3차 심의 회의에서 사할린주의 유즈노쿠릴스크,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시 지구에 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법안을 채택했다. 경제특구는 2046년 말까지 그 기능을 하게 된다.

경제특구의 모든 참가자들은 소득세 면제 권한이 주어지고, 무역 통관과 쿠릴 지역에서 관세 면제 구역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 면제 구역이란 점이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지역 정책은 주민들이 어떤 생산이든, 해외 생산 물품을 들여오는 물류든 창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물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만 이들의 세관 등록이 적용된다. 이런 여건 덕에 쿠릴 섬들에서 러시아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적 제품 생산을 비롯해 실제 제조업이 생겨나고, 이 규정들은 쿠릴 경제특구를 보잘 것 없는 역외 금융 센터로 전락하지 않게 한다

러시아 연방 국무위원회 '투자' 방면의 대표인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이에 추가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세금 공제 체계의 개선 문제에 따른 회의를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 기반 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개인의 기업 발전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특구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 단신

### 사할린에서 러시아컵 알파인스키 선수권 대회 결승전 마무리

3월 3일(금) - 8일(수)까지 러시아컵 알파인스키 대회 결승전이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에서 열린 가운데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알타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연해주, 캄차트카, 크라스노다르, 바쉬코르토스탄, 레닌그라드주, 모스크바주, 마가단, 첼랴빈스크, 무르만스크, 칼루가, 케메로보, 사할린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여 경기 종목 회전, 평행 회전 대회전에서 경쟁을 치렀다.

### 사할린주, 코로나 19 및 인플루엔자 상황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사할린 주에서 111건의 코로나19 확진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2.9 명으로 전주 대비 177.5 % 증가했다고 주 소비자보호감독청이 밝혔다. 특히 17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5배나 증가했으며, 성인의 경우 확진자 수가 2.5배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는 50세 - 64세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급성호흡기 질환 및 독감 감염 상황은 사할린주에서 불안정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3월 첫주에 사할린 지역에서 급성호흡기 질환 사례는 4,300건이 등록됐고, 독감 환자는 51명으로 기록됐다. 발병률은 인구 1만 명당 89.0명으로 감염률 임계치보다 49.1% 높다. 성인 감염률은 41.3% 증가했고, 아동 감염률도 증가하고 있다.

### 사할린에서 파르후트지노브 추념 스키 마라톤 진행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전 사할린 주지사 추모하는 제24회 국제 사할린 스키 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1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프 지역의 레스노예 마을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연령과 훈련 수준에 따라 스키 마라톤의 5개 코스가 제시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500m, 1km와 5km 코스에서 경주하고, 하프마라톤(30km), 마라톤(50km)에 참가자들은 호호츠크 해안의 레스노예 마을에서 출발하여 체호브산 정상 부근의 수수나이 스키 산맥을 지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코스를 마친다.

이번 마라톤에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9일(목) 사할린에 동계 올림픽의 챔피언 및 수상자인 제니스 스피초브, 알렉산드르 판진스키, 율리아 스투파크, 아나스타시야 프로코피예와 선수들도 사할린을 찾았다. 이튿날 선수들은 10일(금) '트리움프' 바이에슬론 스키 단지에서 주민들을 위해 경기 준비에 대한 활동교실을 연다.

새고려신문

##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나제즈다' 특수교육 학교 박영자 러시아어 및 문학 교사 '네가 아니면 누가 할까?', 특수교육에 바친 50년의 시간들 소중하고, 후회없어

지난 4일(토)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의 주최로 세계 여성의 날 축하행사를 찾아갔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과 인사를 나누며 이분을 소개하기로 했다.

박영자(1947년생, 러시아 이름 타마라 세르게예브나)씨는 '나제즈다(희망)'특수교육 학교에서 러시아어와 문학 교사로서 이 학교가 개교한 해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50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학교다.

"저는 사할린의 체호브에서 태어났고 아버님이 어업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쿠릴의 여러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종합대학 일본어과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2년간 통과되지 못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대학에 입학했지요.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직했었기 때문에 공부와 동시에 일을 해야 했죠."라며 박 선생님은 교사가 된 계기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타마라 세르게예브나는 사실 어렸을 때는 한때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직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고, 지금

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적성에도 맞았다고 한다.

1973년에 학교에 임용됐을 때 처음엔 오후반(방과 후 활동을 위한 반인데, 아이들이 휴식하면서 숙제 등 할 수 있음)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대학 졸업장을 받고 나서야 박 선생은 러시아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저는 아이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모던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학교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아이들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니 더욱 특별한 접근법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육적 사명은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한 사회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타마라 세르게예브나 선생이 말한다.

특수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일할 준비가 돼 있고, 설명할 때도 수업 시간에 10분 넘게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이 학생들은 9학년도를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11학년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근로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11학년을 개설했거든요. 이들이 직업을 익히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근로' 수업시간이 많아요. 1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남학생들은 미장공 작업을, 여학생들은 재봉의 기초를 익히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이들이 제2직업 리체이과의 협정에 따라 이 교육기관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게 되고 자격증도 따냅니다."라고 박 선생님이 이야기하였다.

이번에 그가 5학년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이 11학년을 졸업한다.

"요즘 이들 반 수업 들어가면 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가르치는 것이 잘 잊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랄까?"라며 타마라 세르게예브나는 소회를 말했다.

특수학교라서 학급도 장애에 따라 2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해가 더 빠르고 비교

적으로 장애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1급으로 보고 10명 정도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체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5명 정도 반에서 공부하게 된다.

전에는 학교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클루브나야 거리에 위치했는데, 2년 전에 드디어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루고위에 동네에 지어 학생, 학부모들과 학교 직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 새 건물엔 좋은 장비와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교실도 잘 정리되어 학교가 넓고, 공부하는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현재 학교는 200-25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교사진 약 70명을 포함해 직원 170명이 일하고 있다.

그 많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 개교부터 일하는 사람은 박영자 교사가 유일하다. 그동안 쌓은 지체 장애아 교사로서의 경험은 정말 소중하다. 오랫동안 고급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 자격증은 5년마다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지난 12월에 박 선생님이 이 자격증을 다시 따냈다.

"자격증이 있어서 5년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네요."라고 그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는 교감직에서 오래 근무했었다. 60세가 되자 교감

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옛날 교감 업무 중 하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수업 시간표' 작성이다. 이걸 맞추고 작성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도부 부탁으로 이 작업을 계속 맡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박 교사는 학교의 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물론 소련시대에 비해 직업동맹 회원들 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 학교에서 그런 회원은 45명 정도다. 위원장으로서 박영자 선생은 학교 직원들의 생일, 휴양소 입소권, 특혜 등을 챙긴다. 지도부와 함께 행사 개최도 한다.

그가 고급 전문가라는 것을 수많은 포상들이 입증하고 있다. 러시아 교육과학부 표창장, 사할린주지사 명예 훈장, 주 및 시 교육부의 수많은 표창장과 감사장, 그리고 직업연맹 측으로 받은 포상도 꽤 많다.

1973년에 학교 입사한 해에는 결혼도 했다. 딸과 아들을 낳았고 손자 손녀가 벌써 셋이다. 큰 손자는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한 손녀는 지금 대학 재학 중이며, 막내 손녀는 4살이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손자 손녀 모두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 남편과 함께 많이 특이 큰 손자를 돌봐 주었다. 막내 손녀가 주말마다 집에 놀러오고, 손주들 모두가

할머니의 말을 잘 듣는다. 며느리가 막내딸을 데려오면서 할머니를 잘 따르는 걸 보고.

"왜 아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라고 항상 말한다고 한다. 아마도 경험 많은 할머니 선생의 특별 비결이 있는 듯하다.

현재 박 선생은 자유시간에 독서를 즐긴다. 탐정 이야기도 좋아하고, 판타지도 즐기고, 클래식 소설도 자주 읽는다. 전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도 많이 하고, 공원도 자주 가고 스키도 잘 탔는데 2020년에 코로나 19로 남편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학교 일이 어려울 만도 한데 "벌써 75세인데 그런데 아직 학교를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잘라 말한다. 학교에서도 박 선생님을 필요로 해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길 권하지만 타마라 세르게예브나는 '아직 일할 힘도 있는데 집에 앉아서 뭐 하겠나?' 싶다고 했다. 2023년 8월에는 그가 특수교육 학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한 지 50년이 된다. 그가 좋아하는 표현은 '네가 아니면 누가 할까?'인데 그래서 특별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박영자 선생은 교사로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나와즈니 페스트> 축제 참가자, 1천5백 이상 요리 세트 판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3회 <나와즈니 페스트(나와가와 꼬류쉬카 축제)> 미식축제가 막을 내렸다. 총 판매 수량은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500세트 정도이라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매해 우리는 사할린의 관광적 매력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미식적 요소가 여행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관광객들은 지역 현지 요리에 흥미를 가지고 맛보며, 지역의 전통을 알고자 한다. 축제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은 현지의 요리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을 비롯해 러시아와 아시아의 전통 요리가 어우러진 우리 사할린 지역만의 특별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 아르쎬 라자레브 장관이 논평했다.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인 가운데 레스토랑들 중 한 곳의 메뉴 세트인 <엄마, 난 예술에 취했어!>는 히트를 친 메뉴로서 사할린 고객 및 방문객들 300여 명이 맛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붉은 양배추 양념 구이를 곁들인 꼬류쉬카, 코코넛 요구르트 소스를 곁들이 꼬류쉬카, 카레와 배를 캐러멜화 해 곁들인 생선과 시금치 푸레, '나와가와 굴소스를 얹은 샐러드'의 맛을 좋아했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미식축제에서 사할린의 16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나와가와 꼬류쉬카 요리를 선보였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관광부의 후원으로 사할린 관광정보 센터와 '사쿠라' 요리 및 레스토랑 협회가 주최했다.

### Bolee 1,5 тыс. сетов продали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НаВажный фес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трети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НаВажный фест».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данных сетов трехкратно превысило прошлого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и приблизилось к отметке в 1,5 тысячи,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мы наблюдаем рост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нимаем, что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при выборе путешествия. Туристы с интересом пробуют локальную кухню, знакомятся с мест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В рамках подобных фестивалей туристы 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не только с местной кухней, но и уровнем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а также необычной подачей блюд, характерной только для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де сблизилась традиция русской и азиатской кухн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Настоящим хитом стал сет «Мама, я в искусстве!» от одного из ресторанов участников - его попробовали почти 300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Многим пришлось по вкусу корюшка со стейком из красной капусты и соусом из кокосового йогурта, рыба с карамелизированной грушей с карри и пюре из шпината, а также салат с навагой и цитрусовым соусом.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с 9 по 25 февраля, 16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или блюда из наваги и корюшк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является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и ассоциация кулинаров и рестораторов «Сакур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22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방문객 150만 명 넘어

2022년에 가가린 문화·휴식 시공원의 행사 방문객이 150만 명을 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지난해 공원에서 571개의 다양한 수준의 행사들이 펼쳐진 가운데 시공원으로는 풍성했다. 그중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컸던 행사는 '도시의 날'이다. '도시의 날' 일환으로 웨르흐네예 호숫가에서는 모스크바의 수상 전문가팀이 수상쇼를 펼쳤다.

지난해에는 공원 내 청소 및 정비와 조정 작업, 구역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공원의 북동쪽 구역에는 '기적 - 섬들'이란 새로운 휴식 구역이 조성돼 사할린의 꽃들과 관목들로 꾸며지고, 벤치와 풍경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그네가 설치됐으며, 유즈

노사할린스크 조경작업의 일환으로 구역들은 깨끗이 정돈됐다.

여름 시즌은 5월 초부터 시작되며 이때쯤 기술적 점검 및 가동 준비를 마친 음악조명 분수대가 개장된다. 또한 공원 내 조경작업을 계속하여 3만 포기의 다양한 꽃들을 심을 계획이다.

### Bolee 1,5 млн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парк Гагар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22 году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2022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Гагарина посетили более 1,5 млн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инувший год был для парка насыщенным: проведено 571 мероприятие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Среди самых ярких и масштабных — к примеру, День города. В его рамках состоялось водное шоу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от московской команды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ве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зеленению и развитию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Напомним,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парк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овая зона отдыха «Чудо-остров» с сахалинскими цветами и кустарниками, а также скамейками и панорамными качелями. Участок благоустроили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по озеленен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ытие летнего сезо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начало мая, к нему приурочат запуск светомузыкального фонтана, который уже прошел 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и подготовлен к работе. Продолжится озеленение парк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будет посажено 30 тыс. различных цветов.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과 방문객 25,000명 이상, 시내 및 외곽 관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누구든 도시를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관광 안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들이 대중화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방문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관광 가이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 센터' 시립 자치기관이 주최하고 있다.

(8면에 계속)



### 동포 사회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세계의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이하여 주내에서 많은 기념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동포 단체들도 역시 이날을 기념했다.

이 행사들은 지난 주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여러 곳에서 펼쳐졌다.

3월 4일(토) 17시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 주 한인여성회, 주 한인청년회의 주최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에 주로 1세 어르신들과 <60+클럽> 회원들을 초대하였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은 여성들에게 축하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여성의 역할과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축하 공연으로 '하늘'사물놀이 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무용단, 오 블라디미르 아마추어 가수, 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 등이 명절을 기분을 한껏 안겨주었다.

'토르나도'태권도 클럽(회장 리 파벨)의 선수들의 태권도 시범도 씩씩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성회 회원(회장 김 타치아나)들도 축사를 준비하여 따뜻한 환호를 받았다.

여성회에서는 이번에 명절상을 차렸고, 주 청년회에서는 공연 프로그램을 맡았다.

공식 축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인문화센터 소속 보컬 앙상블의 무대가 펼쳐졌고, 행사 참가자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즐거운 춤을 추며 놀았다.

\* \* \*

같은 날 저녁 7시 '메가폴리스'레스토랑에서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회장 천영근)가 3·8절 축하행사를 가졌다.

천영근 회장을 비롯해 남성 분들의 축사가 계속 이어졌고, 도시의 여러 분야(보건, 교육 등)에서 공로를 세운 한인 여성 몇 분들을 이 행사에 초대하여 아름다운 톨립 꽃다발을 선사했다. 행사는 즐거운 퀴즈, 놀이, 당첨 등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마음껏 춤을 추며 즐겼다.

\* \*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회원을 중심으로 3월 5일(일) '가가린' 레스토랑에서 명절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립종환 시한인회 회장의 축사와 함께 축하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시한인회 소속 합창단과 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웃음을 안겨주는 남성들의 유머 무대도 준비됐다.

행사장에서 수산나 아드로와 시두마 의원이 이날 김경순 시민에게 시두마 표창장을 수여했다. 작년에 KBS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경순 씨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할린한인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다.

이날 모든 여성분들이 장미꽃을 나누어 받았다. 이 행사에서도 역시 명절을 축하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3월 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한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정승훈 신임 원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할린 한인들의 여러 축하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 행사를 앞두고 시한인회에서 4일(토) 오전에 노인정 모임에서 할머니들을 축하하고 명절밥상을 차렸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들을 통해 주 한인회와 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주 한인협회의 행사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립종환 회장이 참석했고, 주한인회와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같은 날 행사를 하여 두 회장들이 서로 행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5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행사에는 이 세 단체 회장들이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고 여성분들을 축하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에 따르면 한인문화센터에서 이 명절을 다 같이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시한인회들에서 계획안에 따라 이미 준비를 실시하는 중이어서 좀 늦었다고 설명했다. 단체 지도자들이 서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통계로 보는 세계 여성의 날

봄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명절인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시작된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할린 통계국이 현재 사할린 여성들의 여러 분포 양상을 수치로 집계했다.

2022년 초 사할린주에 여성 거주 분포는 25만100명으로 사할린 전체 주민의 52%이다. 그중 대부분인 83%의 여성은 도시의 주민이고, 17%는 지방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사할린 여성은 근로능력이 있으며, 30%의 여성이 고령층이고, 19%가 청년층이다. 사할린 여성의 평균 연령은 42세이며, 도시 여성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지방 마을의 여성 평균 연령인 44세보다 젊다. 사할린 여성의 평균 연령은 10년간 딱히 변하지 않았다. 2022년 초에는 사할린주에서 17명의 여성이100세를 맞이했다. 이전부터 여아의 출생률은 남아 출생률보다 낮았는데 45세 - 49세 연령에서는 성별의 불균

형이 나타나 남자 100명에 여자는 1069명으로 바뀐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여성이 반려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시기를 말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2022년에 25세 - 29세에서 남성은1000명이, 여성은 799명이 혼인을 생각했고, 30세-34세에서는 여성 836명이 혼인을 하려고 했다. 대부분 여성으로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2022년 초 혼인한 사할린 여성은 3,500 명으로 그중 2/3가 첫 혼인이었다. 여성이 혼인하는 보편적인 연령은 20세 - 34세(58%)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그 영향으로 평균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아 57%가 25세-34세의 여성에게서 태어났다.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취업하거나 사회로 진출한 후 30세 이후에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고 있다. 30세 - 39세 연령의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비율은 10년 만에 1.4

배 증가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 전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보건 분야, 교육 분야, 호텔 및 요식업, 금융 분야이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5.6배 많으며, 보건 분야에는 4.5배, 상업 및 호텔업, 요식업에서는 1.8배 많다. 여성들이 국가 및 지방 행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45.4%이며, 사할린 여성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4세이다.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할린 주 여성의 학력 수준은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 근로자는 37%, 남성은 25%이며, 직업 전문교육 이수자는 여성이 42%, 남성이 47%이다. 여성의 취업률은 60%이고, 남성은 72%이다.

이외에도 사할린주의 사회적 인구통계학, 생태환경적, 그리고 다른 사회적 과정에 대해 사할린통계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 재외동포청' 오는 6월 출범

#### '정부조직법' 공포안,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6월 시행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 것으로 간주해 그 시점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에 출범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우리 말 / 리진

내가 있고 난 피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로 하자  
나를 낳아 축난 땅 앞에  
값아야 할 그 빛도 또한  
문제가 아니라고하기로 하자  
그러나 어찌면 좋니  
이 마음의  
온갖 정과  
이 마음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  
목 선 소리는  
오직  
우리말로만 울리잖느냐?

"러시아의 조선인 문인 중 국적이 없는 유일한 문인입니다. 리진. 망명을 통해 북한 국적을 버리고도 끝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무국적자. 이 모든 과정이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뒤, 출근 40여 년 가까이 이어졌더니. 그 불편함과 불안감이 얼마나 끔찍했을 지 상상마저 안 가네요. 당시 러시아에서 생활하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밖에.

1992년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리진 시인에게 상을 하나 수여합니다. 이 틈하여 해외문학상. 당선 소감이 이례적이었죠. "고맙습니다"가 끝! 군더더기가 없다기 보다, 이쯤 되면 삶의 태도에 있어 어떤 철학이 깃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중요한 행사에도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다고 하니, 위풍당당한 시인의 처세가 부러워집니다. 시집을 펴내도 자신의 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일이란 물론 없던 분이죠. 그런 행위란 그 언제든 보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듯 <우리 말>과 같은 시를 차라리 선보였던 분.

말은 곧 우리의 '얼'입니다. 그 안에는 결코 베일 수 없는 단단한 껍질과 속내음이 자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썼던 말들.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거기 숨겨 있던 구부정한 해학이며 바른 정신이, 그런 마음 가짐이 이 시의 주변을 휘어 돌고 있습니다. '목 선 소리는 오직 우리말로만 울리잖느냐?'라는 표현에서 역시 웬지 모를 슬픔이 밀려오네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노스텔지어 Ностальгия'는 안드레이의 이야기일 수도, 도미니크의 이야기일 수도, 무엇보다 소스노프스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광장한 영화였죠. <우리 말>의 시를 읽는 내내 '노스텔지어'의 도미니크의 절규가 비춰지기도, 소스노프스키의 위험한 선택이, 안드레이의 진지했던 시선이 떠올랐어요. 다시 봐야겠네요, 다시 봐야겠어. 호오, 그 때 유제니아였다,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아주 아주 멋지게 등장하는 바람에 몇 번이고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봤던 기억이, 아, 왜 얘기가 또 이렇게 새 버렸을까요, 나 원 참.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Газете «КОРЁ ИЛЬБО» - 100 лет!

1 марта 2023 г. свое 100-летие отметила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издающаяся в Казахстане.

Основанная в четвёртую годовщину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1923 г.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азета, издававшаяся в СССР дл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начально называлась «Сенбон» («Авангард»). Её самые первые номера выходил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ервое марта». Осенью 1937 г. издание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ыло депортировано в Казахстан. В 1938 г. газета сменила название на «Ленин кичи» («Ленинское знамя») и стала выходить в г. Кызыл-Орде. В 1978 г. редакция переехала в Алма-Ату. С 1991 г. выходи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рё ильбо».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о 100-летием газет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 течении всего года, и пройдут не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т своих коллег и желает верных читателей, легкого пера, больших гонораров, долголетия и процветания!



## Начал работу цифровой центр помощ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В диаспор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баз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начал работать цифровой центр помощ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https://t.me/Korean\\_telegraph](https://t.me/Korean_telegraph).

Принцип работы основан на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через соцсети Телеграм и ВКонтакте. Любой, кто пользуется этими соцсетями, может в режиме 24/7, т.е. в онлайн, отправить обращение (предложение, вопрос, жалобу на нарушении прав, просьбу о помощи и пр.).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стоят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различ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чтобы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решить практически любую проблему.

Согласно принятым регламентам, ответ на обращение, во-первых, должен быть в любом случае, а во-вторых, не позднее трех дней с момента обращения.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начал принимать обращения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и уже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2,8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Важно дополнить, что центр помощи организован только на базе РООСК, но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принимает обращени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даже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поэтому свои обращения могут отправлять все сахалинцы и земляки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оказавшиеся на материке или за границей.

## В Южном отметили Женский День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немало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празднова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дня – 8 марта.

Так, 4 марта, в субботу,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ошло в стенах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та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а также областная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Гостями вечера стали, в основном, люди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члены «Клуба 60+» и др.

В праздничном концерте, который подготовила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мера от ДШИ «Этнос», группы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ьиль», танцев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Химан», певцов-любителей и т.д.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дготовили и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з клуба тхэквондо «Торнадо». Женщины в этот день принима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О Тин Ха (Виктора Михайловича).

А затем всех ждала танцеваль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 вокально-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при ККЦ.



В этот же день в ресторане Мегаполис Женский праздник отметили МО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Ен Гын). В числе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 женщины, отмеченные заслугами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образование, медицина и т.д.).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старались создать приятную дружескую атмосферу, приготовив веселые викторины, конкурсы и лотерею.

5 март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ресторане Гагарин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а МОО корей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Гостей порадовали музыкальные подарки от хора и танцев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 также шуточный музыкально-танцевальный сюрприз от мужчин. Почетная грамота о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была вручена пенсионерке Ким Ген Сун за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Гости радовались подаркам, конкурсам, цветам.

А днем раньше, ме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крыла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с подаркам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собрав традиционно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побывал на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Женскому Дню.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н принимал в этот день в гостях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О Тин Х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 Ханин» Чон Ен Гына.

Эти маленькие шаги навстречу дают надежду на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иктория БЯ)

## Спортсме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оевали награды в Игра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АТР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прошли Игры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Участниками турнира стали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спортсменов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18 лет, также соревнование является отборочным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е юношеские игры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которые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ят в сентябре в Анапе.

В программу Иг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вошли состязания в 12 видах единоборств. Участники разыграли награды в айкидо, вестилевом каратэ, джиу-джитсу, кикбоксинге, киокусинкай, кудо, каратэ, рукопашном бою, самбо, ушу, а также тхэквондо двух версий – ГТФ и МФТ. В воскресенье 26 февраля состоялись гала-финалы, где выступили лучш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 каждом из единоборств турнира.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 Сухаг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Кристалл» и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Шторм», (руководитель Че Сергей)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



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ях по тхэквондо и кикбоксингу. Ребята завоевали внуш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т наград. В их копилке 31 медаль, в том числе 12 золотых, 9 серебряных и 10 бронзовых.

В поездке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 Игры помощь оказала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Наш корр.)

**ЧЕМПИОНАТ И ПЕРВЕНСТВО ТХЭКВОНДО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 НАЧАЛО 10:00 | ЛЕНИНА 107**

**12 МА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 2023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ССИРЫМ**

**ВТОРОЕ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1 МАРТА В 10:30**

Г. НЕВЕЛЬСК, УЛИЦА ЯНА ФАБРИЦИУСА 4,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ТЕЛ.: +7 (984) 136-73-75 ; +7(914) 755-25-58

WWW.SSIREUM.RU

**ПРИГЛАША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глашает **17 марта 2023 г. в 18.00** на встречу с автором поэтических строк, поэтом-песенником ТЭХО ЧАН

Тема встречи: **"Познавая себя"**

*Четверостишия – песчинки...  
Частицы дум и размышлений,  
Крупинки или половинки  
Однажды схваченных мгновений*

Место встреч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конференц-зал, 9 этаж

- Встреч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 17:30 - кофе-брейк

**Тэхо Чан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1950 г.р.)**  
Тэхо Чан – человек неординарный, открытый для общения, целеустремлённый, живущий в постоянном поиске. Желание дойти до сути, до смысла истинной красоты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 в четверостишиях, которые автор называет – «песчинки».

Окончил Новосибирский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кандидат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преподавал в вузе,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бизнесмен, поэт-песенник, пишущий о Сахалин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наковой стала его песня «Далекая, но близкая Коре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Россия разочарована новы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анкциями

Россия выразила глубок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решением Сеула расширить список товаров, которые запрещено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27 февраля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реш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нято в русле антироссийской линии ведомого Вашингтоном коллективного Запада». Нов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естрикци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граниченность возможностей Сеула провод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линию на росси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Это нанесёт ущерб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уже серьёзно пострадавшему посл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РК к первому пакету санкций «коллективного Запад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РК отразя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всём комплексе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но и на качестве кооперации двух стран в сфере корей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 отмет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24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сообщило о расширении перечня продукции, подлежащей экспортному контролю при отправке в Россию, с 57 до 798 наименований. Среди них станки, подшипники, теплообменник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нефте- и газопереработки, автомобили стоимостью более 50 тыс. долларов и другое. РК входит в список 48-ми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России стран.

## РК не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поставках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Украине

РК ещё не решила, отправлять ли летальное оружие Украине, несмотря на её неоднократные призыв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программе Quest Means Business телекомпании CNN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еул в достаточной степени поддерживает Киев, выделив 13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Коснувшись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Хан Док Су напомнил, что Сеул делает упор на наращи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сдержива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деясь на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Он также дал понять, что РК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прос о приобретен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еред лицом растущих ядерных угроз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а. Пхеньян должен понять, что развитие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не гарантирует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о всём мире, - отметил Хан Док Су.

##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праведливая и прозрачная систем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праведливая и прозрачная систем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3 марта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Он пообещал, что н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популистскую политику, целью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завоевание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я. Усилия будут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помощи уязвимым слоям обществ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ценностей в системе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По его словам, история налогов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своб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спечивать свободу личности и имущественные права населения, а жители страны должны не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обществом, выплачивая налоги согласн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Это, как подчеркнул Юн Сок Ёль, является началом демократии. Он заявил, что не будет усложнять положение част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утём налогового давления в каком бы сложном финансовом положении ни оказалась стран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зидент пообещал создать чёткую процедур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эффективно оспаривать решения налог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Юн Сок Ёль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будет тратить налоговые средства на создание качестве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расширение экспорта, поддержку стартапов и другие нужды, отвечающие интересам страны.

## Четыре детские книги из РК получили призы BolognaRagazzi Award

Четыр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етские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е книги получают призы BolognaRagazzi Award, одной из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емий в области детских книг.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они были выбраны для «особого упоминания» и заняли вторые места в трёх категориях. Книга «Переезд» автора Ли Чжи Ён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Книга писательницы Ми А «Скамейка: о её печали» удостоена приза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писателей. Книги «Театр теней» Ким Гю А и «Дом Дракулы» группы авторов Sunday получили премии в разделе комиксов для чита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9-12 лет.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шла во время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6-7 марта в итальянской Болонье. Ежегодные награды, которые вручаются с 1966 года, часто называют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ей в области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Они считаются одной из трёх крупнейших наград в этой области, наряду с премией имени Ганса Христиана Андерсена и премией памяти Астрид Линдгрен.

(RKI)

## Сеул заяв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зеркально ответить на провокации Пхеньяна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вес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ещает быть беспокойной. В Сеуле заявили, что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повышена боеготовность и они приготовились зеркально ответить на возможн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трельбы КНДР в районе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Как ожидается, Пхеньян пойдёт на это и, возможно, на более жесткие шаги в связи с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ми на 13-23 марта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ми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маневрами "Щит свободы", куда будет мобилизова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техники, включая авианосцы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Весна в Корее, несмотря на всю её красоту и приятную погоду, считается в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м плане очень беспокойным периодом. Причиной тому являются регулярные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которые, как правило, проводятся с большим размахом. Это обыч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не нравится Пхеньяну, который видит в них подготовку к атаке против себя.

Все именно так складывается и на этот раз. Вче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ША и РК заявили, что с 13 по 23 марта они проведут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маневры "Щит свободы". В них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десятки тысяч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ехники, ожидается прибытие авианос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СШ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юзники сообщи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ни намерены провести и стрельбы, и отработку десантных операций, и репетиции действий по защите и нападению.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из-за подх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которое пыталось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связи с Пхеньяном, эти учения под разными предлогами отменялись. Но с ма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К у власти другой лагерь - консерваторы, которые к нескрываемой радости США наоборот настроены провести учения с особым размахом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хеньяну всю силу своего союза с Вашингтоном.

Хот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обороны РК и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войск США в Корее назвали грядущий "Щит свободы" "оборонительными учениями", но в них в полной мере будут отрабатываться 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операции, а потому Пхеньян это все не радует. КНДР уже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а их как "репетицию вторжения на Север". Ранее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пообещала Южной Корее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по мощности и силе ответ на подобные учения.

Судя по всему,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не "проглатывать" возможные выпады КНДР, а наоборот активно отвечать на ни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минобороны РК сообщили, что в войсках страны повышена боеготовность, они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ют за КНДР и готовы ответить на провокации северян. В частности, пояснялось, что в случае проведения КНДР в районе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масштабных стрельб с применением артиллерии и РСЗО Южная Корея ответит точно так же.

Отметим, что согласно межкорейск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 Сеул и Пхеньян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мерах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Среди них есть положение о запрете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буферной зоне", которая прилегает к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Юг обвиняет Север в том, что последний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рушал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роводя в этой зоне стрельбы,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ло место. Правда в КНДР парируют тем, что возобновление учений с США, на которые пошел Сеул, также нарушают дух межкорей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а потому, по логике Севера, южане первыми пошли на обострение.

В любом случае теперь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в районе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будет "жарко". Так или иначе КНДР отреагирует на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ия, тем более что теперь маневры проводятся именно так, что потенциально мог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угрозу для Пхеньяна. Север обеспокоен тем, что к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стягиваются большие силы США и РК, а при желании все это легко может быть развернуто против КНДР. При этом стрельбы в районе границы выглядят, пожалуй, как весьма сдержанная реакция Пхеньяна, хотя именно на них Сеул пообещал сразу отвечать.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КНДР пойдёт на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 том числе тех, которые могут долетать до США и, при самом остром варианте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на очередны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В Сеуле 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и просчитали все сценарии и у них готов ответ на любой из ни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 Black Eagles получили высшую награду на авиашоу Avalon

Пилотажная груп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Black Eagles была отмечена на авиашоу Avalon, проходившем с 28 февраля по 5 марта в Австралии.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авиационным событием в Южном полушарии,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раз в два года. Black Eagles получили высшую награду Best Overall Display.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роведения авиашо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лётчики ежедневно выступали с получасовой программой, демонстрируя своё мастерство.

8 марта Black Eagles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родину, сделав остановки в Индонезии и на Филиппинах. 13 марта группа прибывает на авиабазу Вончж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Black Eagles получили высшую наград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казе боевой авиационной техники, проводимо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Королевских ВВС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KBS World

## Оппозиция осуждает компенсационные меры

Ни одно предыдущ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аже не пыталось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оставались натянутым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врем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Чон Чжин Сок, комментиру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план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ставших жертвам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Мы не можем не спросить себя,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и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сохранение натянутых отношений», - добавил он, призвав Японию принять ответные мер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лид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одверг критике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без участия японских фирм, назвав его «худшим позором в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хож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н Сок Ёля выбрала путь предательства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KBS World

## Объявлен план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6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вило о мерах по выплате компенсаций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ставших жертвам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японскими колони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ак Чин, 15 корейцев, выигравших судебный иск у двух японских компаний, получают компенсации через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будет собирать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от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жертвов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а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заключённого в 1965 году.

В 2018 году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бязал компани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и Nippon Steel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но они отказались.

Токио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все вопросы репараций, связанные с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ей Кореи в 1910-1945 годах, были урегулированы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а от 1965 года. Сообщается также, что сторон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здании «Молодежного фонда будущего»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ипендий для студентов двух стран.

KBS World



### В здании бывшего кинотеатра «Комсомолец»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зрительного зала

На площадке,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новым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м залом Чехов-центра, развернули работу по демонтажу старых элементов. До конца года здесь планируется улучшить акуст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ить световое, звуковое и проекци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роме того, современное твор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лучит сцену-трансформер.

Ход работ на объекте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ход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 Чехов-центр – это горд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пектакли наших постановщиков пользуются огром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жител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Уверен, новый зал поможет еще больше раскрыть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ских актеров и режиссеров. 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ста для зрителей позволят сделать высокое искусство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зал Чехов-центра сможет вмещать до 200 человек. Это почти в пять раз больше действующей площадки, на которой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й зритель знакомится с малыми театральными формами.

Театра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лучит темные стены и ровный пол. Помещение в формате «черного ящика» откроет для постановщиков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 сцену и декорации можно будет перемеща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ворческих задач. Так, на новой площадк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пектакли, концерты, квартирники, перформансы, творче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и выставки.

– Ежегодно мы планируем показывать здесь 150-170 спектаклей. На новую сцену перенесем любимые сахалинскими зрителями хиты малой формы. В их числе – «Тестостерон», «Экстремалы», «Старший сын», «Записки сумасшедшего». А летом совместно с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планируем провод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 которых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пуляр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профессиями,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 А.П. Чехова Татьяна Корнее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территории возле бывшего «Комсомольца». Здесь 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кафе.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редложение поддержал.

– Считаю важным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территорию вблизи театра. Здесь находится сквер, который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уличных постановок, концертов и перформансов. Это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новую площадку мощной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горожан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 отметил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тметим, спектакли островного театра играют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Чехов-центре. В их числе – Большая сцена, Черный зал, фойе 2-го этажа театра. Также постановки малой формы показывают, выстраивая зрительный зал на самой сцене.

###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ся Федеральный цифровой форум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форума «Управление регионом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и более 60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лучшими практиками внедрения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обменивались опытом, участвовали в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ях. На финальной сессии делегаты подвели итоги подписали ряд соглашени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 В центре всего у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ми стоит человек или семья,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ое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медицину, образование и карьеру, транспорт, жильё,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досуг и отдых. Мы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ли получение этих услуг для каждой категории семь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и упростили процессы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Готовы 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у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ми с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страны,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озвучил ряд инструментов у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ми, применяемы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рекомендуют к тиражированию по итогам форума. В топ попали Ситу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 65» и сервис «Доступная цена», система «Видео-врач» и лист ожидания для пациентов, проактивное выявление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мониторинг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родителями каче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Догазификация», школы заказчика и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 Мы как раз и проводим такие форумы, чтобы найти лучшие образцы, которые нужно растиражировать от тех, кто сделал это уже хорошо, тем, кто еще не прошел эту дорогу. Именно это должно являться результатом на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Здесь мы видим зрелый продукт по мно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пределим матрицу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будем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овать к тиражированию по регионам, либо уже готовые, либо которые надо доработать, чтобы они попали на федеральные платформ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Олег Качанов.

– У нас за эти два дня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что такое цифров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и какой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Есть миф, что это буквально автоматизация,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что это дорого и долго. Но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мы увидели, что это не так. Команды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буквально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картируют процессы и дают большие результаты, – отметил еще один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Григорий Борисенко.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сессии форум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писала два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рамках одного из них регион предостави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современные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и программные продукты.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документ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буд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НО «Лаборатория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в ДНР организуют полевую почту

С просьбой наладить адресную доставку писем и посылок из дома защитникам, которые несут службу в зоне СВО, обратились женщины из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68м армейским корпусом, обороняющим Донбасс, займется решением этого вопроса.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комитетом обсудили такж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обзвона со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в режиме 24/7 они получают обращения от защитников и их семей. Множество запросов касаются адресной доставки посылок тому или иному бойцу на передовой. Уже к понедельнику, 6 марта, в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попытаю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левую почту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Если все пройдет удачно, планируется наладить коммуникацию и с другими армейски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где несут служб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Женщины из комитета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и главу региона за новую форму заботы о семьях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За каждой семьей закрепил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ботника. Специалисты начали обзванивать род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и спрашивать, какая помощь им требуется.

– Мы уже получили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семей. Они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за такое внимание и личное участие. Рано утром мне звонили мамы и жены бойцов из Холмска, Долинска, Тымовского, Ноглик. Он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оставили им свои личные сотовые телефоны и предложили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любых вопросов. У нас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мостик, где по короткому пути мы можем напрямую обратиться к руководству области, – 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митета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и Орловой,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обзвонили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емей. Все их наказы собраны в единую базу данных и отданы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Родных бойцов, в частности, волновали вопросы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и получения зарплат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оинским званием. Пока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сосредоточились на семьях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охватить и кадровых военных.

– 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личных приемов семей н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Такие же встречи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и главы районов. Не должно оставаться ни одного нерешенного вопроса, который волнует жен, матерей, детей наших бойцов.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ш Верховный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так 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годня нет ничего важнее благополучия защитников,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передовой, и их близких, кто ждет их дома с победой.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пациентами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Прием прошел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лечебном учреждении. Пациенты затронули, в частности, вопрос о недостатках пр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различ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о время недавней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с главо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 островах. Он рекомендовал региону включитьс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федер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Между те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губернаторе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ами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онкобольным. Ее главная цель – выявить и устранить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при постановке диагноза, во время лече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Выявление 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пациенты,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помочь им, но и прин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системные решения.

Придя на прием к губернатору, мать юного жителя Корсакова пожаловалась на бюрократию. Ее сыну в столице сделали операцию по удалению опухоли. Теперь ребенку необходимо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ить магнитно-резонансную томографию, друг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официально отправлять получ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Москву. Но процедура оказалась запутанной.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результата, женщине пришлось обойти нескольких врачей в раз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 Разберитесь, почему женщина с ребенком, кото-

рый перенес очень серьезную операцию, осталась без поддержки, и накажите виновных. Кроме того, важно выяснить, где в системе работы с онкобольными произошел сбой, и принять меры, чтобы подобные случаи не повторялись. Из каждой подобной ситу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делать выводы, – потребовал от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одна мать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ее сыну слишком долго оформляют инвалидность. А без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начать процесс реабилит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ускоренном порядке разработать программу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то позволит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абилитации сраз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формальностей.

– На встрече пациенты рассказали о недостатках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различ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очень важна, она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йти пут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в интересах пациентов, – отметила общественница Мария Ульянова, участница и инициатор создания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вопросам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онкобольным.

Между тем, в арсенале сахалинских онкологов появля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диагностики.

–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мы получили новый аппарат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днофотонной эмиссионной компьютерной томографии и компьютерной томографии (ОФЭКТ КТ) «Siemens». Главное – э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особно выявлять онкопатологию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когда анатомические и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не видны и не могут быть выявлены с помощью классической луче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Внедрение такого аппарата д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иагностики,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Старцев,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главный онколог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 Принцип действия следующий – пациенту в безопасной дозе вводится радиоактивное вещество, которое имеет свойство накапливаться, в частности, в тканях с патологическ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 помощью аппарата проводится сканирование. При э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ю подвергается все тело, а не отдельный орган или часть тела. Аппарат определяет места скопления радиоактивного вещества,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являет патологию, – поделилась подробностями Ирина Захаров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радиотерапии.

Проведение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новом аппарате начнется примерно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 Специалисты сферы ЖКХ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лучши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Вопрос о поддержке сотрудников,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прозвучал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членам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режиме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обсудил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ряд тем из различных сфер.

– Не секрет, что сфера ЖКХ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ая и зарплаты не очень высоки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в регионе заработала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феры ЖКХ в части улучшения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Может это будет льготная ипотека ил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 – обратилась директор одной из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 что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сейчас обсуждается программа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именно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треть аренды будет оплачиватьс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треть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треть жильцам.

– Нам, безусловно, выгодна эта программа. Так мы сможем поддержать еще одну категор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ряду с врачами, учителям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их профессий, которые уже пользуются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едорогой аренды жилья. Мы сегодня строим п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ежегодно. Треть всего строящегося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арендное и социальное. Будем предлагать вариа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Ф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всего в арендном фонде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около 2600 квартир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строятся еще около 7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 это порядка 1200 квартир. Стоимость аренды квартиры в таких домах в два раза ниже средней рыночной.

Также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новом здании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оказали просторные помещения, в которых занимаются десятки человек. Приоритет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Здесь работает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пенсионеров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консультации психолога, юриста, консультации в сфере ЖКХ. Обучение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компьютер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Также работает патронажная служба «Родные Люди», где оказывается качественный уход и присмотр за людьми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В центре широко разви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ряд других проек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오랜 현안 대법 판결 이후 갈등 이슈로

## 일제 1938년부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인원 약 780만 명 추산 과거 日청구권 자금 등으로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 2012년 대법 판결로 전환점 2018년 이후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갈등 본격화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해법을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뒤흔든 현안이었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8년 4월부터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해 조선인들을 전쟁터와 군수업체 등지로 강제 동원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시기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약 7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해방 이후 정부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협정문에는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조 1항에는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일부 피해 보상을 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천519 건에 대해 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9.7%가량인 약 9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나섰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7만 8천 명에 대해 약 6천5백억 원을 지급했다.

당시 민관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입장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강제징용 피

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은 2000년대부터는 한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일본 기업 중 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는 2005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일본 판결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 맞다고 파기환송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의미였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숫자로 치면 피해자 기준 15명(원고 기준 14명)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풀고자 '1+1' 방안(한일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지역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을 마련했으나 일본의 피고기업 배상 참여 반대 입장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간의 본격적인 협상 동력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등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

정부는 일본 측에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지만,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주요 일지

2018년 10월	대법원, "신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판결	이행 거부
11월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판결	이행 거부
12월	피해자들,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현금화 절차 추진	
2019년 6월	한국 정부, 한일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자원 조성에 배상한다는 '1+' 방안 일본에 제안	일본 거부
7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8월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12월	문희상 국회의장, 한일 기업-정부-국민년 기부금으로 '지역인권재단' 설립해 배상한다는 '문희상안' 발의	입법 무산
2022년 7월	정부, 배상 해법 모색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11월	한일 정상,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등 현안 조기 해결 공감대 표시	
2023년 1월	정부, 배상 해법 의견 청취 공개토론회 개최	
3월	정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원을 우선 출연하고 이를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 공식 발표 예정	

김영은 기자 20230305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해법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후지코시, 히타치조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여러건이 계류돼있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전시 개막



(알마티=연합뉴스) 김상욱 통신원 = 2월 2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특별 전시실에서 열린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전시 개막식에서 오스빠노바 바크트자말 국립도서관장이 고려일보의 업적을 적은 기념패를 김곤스탄틴 고려일보 총주필에게 수여하고 있다.

고려일보사와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이 공동주최한 전시에는 1923년 3월 1일에 창간된 고려일보의 전신 '삼월일일'의 창간호 영인본과 소련당국이 민족간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고려일보에 수여한 훈장, 1937년에 발행된 '선봉'신문을 비롯한 '레닌기치'와 '고려일보' 신문 원본, 소련시절 기자증, 기록사진들이 전시됐다.

## '인천 재외동포청 유치' 토론회 '1만 고려인 상생, 다문화 포용력 갖춰'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이민이 시작했고 다문화를 포용하는 도시 정체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인천개항장연구소, 인천여성사연구소, 인하여사문화연구소는 6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 이민사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유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실련·개항장연구소 등 토론회  
사할린 귀국자 정착 주거 적극 지원  
연수구에선 24년째 복지회관 운영도  
중앙아 출신 고려인 함박마을 밀집**

강구역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는 재외동포청을 지역에 유치해야 할 이유로 인천은 이미 재외동포와 관련한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점을 들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재외동포들과 모국과의 연대가 중요하고, 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천이 최적지라는 의미다.

인천은 바다를 통해 오래전부터 다른 국가와 교류했고 우리나라 근대 첫 공식 이민이 시작된 곳이라는 게 강구역 대표 설명이다. 1902년 12월 121명의 한인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이듬해 86명이 하와이로 이주한 게 근대 첫 공식 이민이다.

강 대표는 하와이 재외동포들이 인하공과대학(현 인하대)을 설립하기 위한 성금을 내면서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출발지였던 인천에 나타냈다고도 강조했다.김상열 인천이민사박물관장은 인천이 이주민의 도시이자 이민 역사의 도시로, 다문화를 수용할 포용력을 갖췄다고 했다.

김 관장은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사할린 귀국자를 수용했고, 1만 명이 넘는 고려인 재외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린 6일 인천시청 애플광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형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허종식 국회의원, 강범석 서구청장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동포가 상생하고 있다"며 "인천은 지역에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동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도시이자 재외동포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라고 덧붙였다.인천은 지난 2007년 500여 명의 사할린 동포가 귀국해 정착한 곳이다. 이들에게 정부는 임대주택을 제공했고, 지자체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는 1999년부터 24년째 사할린 동포들을 돕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도 있다.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이 밀집해 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이민사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친근감이 있어 이 공간을 중심으로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인천은 국제공함과 인천항이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강점도 있다"고 했다.

(경인일보)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우리는 도보 관광코스로부터 시작해 다음 코스는 버스를 이용하도록 확장했다.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주요 관광은 도시 알아보기로서 도시 명소를 순회하는 무료 관광 가이드이다. 여기에서 도시 역사의 시작점이 된 블라디미르브카 마을과 카라후토 시대와 소비에트 시기의 도시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가이드는 현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고 견학 조직 및 문화관광 센터와의 안드레이 카프칸 부소장이 설명했다.

시행정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몇 가지 흥미로운 방안을 개발했다. 예를 들면 <바다의 운명> 관람에서는 누구나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끼고 있는 항해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고, <무슬라미 키미나이> 관광에서는 라구쉬카(개구리)암반을 찾아갈 수 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래 2년이 넘게 25,000명 이상이 다양한 도시 관광의 매력에 빠졌다. 2022년 말에 문화관광 센터는 시네고르스크 마을로 새로운 관광을 시작했는데 이 마을은 이제 막 인기가 오르고 있다.

마을로 가는 길은 미졸스키 산맥을 따라 도로 풍경이 정말 아름다우며 가는 길에 휴양소에서는 잠발 산을 관광할 수 있다. 시네고르스크에는 흥미로운 명소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사할린에 첫 공룡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철도가 운행됐으며, 석탄을 채굴했던 곳임을 가이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현지 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독창적인 박물관도 있다."고 문화관광 센터의 소장이 말했다.

관광 가이드는 일년 내내 진행되며 날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광 신청을 해야 하고, 전화는 210-310로, 또는 <https://taplink.cc/cooltour65>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다른 상호작용 행사들과 활동들, 예를 들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된 오디오

관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 Более 25 тыс.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бывали на экскурсиях по городу и окрестностям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экскурсий,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деталь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городом.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программы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экскурсий является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 с 2020 года.

«Мы начинали с пешеходных маршрутов, потом перечень расширился до автобусных. Основная экскурсия, которая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 знакомство с городом, это бесплатная обзорная экскурс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идет объезд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Здесь можно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начале города — селении Владимировка, об истории города в период Карафуто, советского времени, экскурсовод поделится интересными фактами о современн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организации экскурсий и мероприятий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Кафкан.

В учреждении разработано еще несколько интерес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Так, к примеру, на экскурсии «Морские судьбы»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и мореплавания вдол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 экскурсии «Руслами Киминай» можно посетить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Более чем за два года, с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е экскурсии охватили более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конце 2022 года в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запустили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в село Синегорск, оно только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По пути в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достаточно красивая дорога с видом на Мицкульский хребет; в селе Санаторном, по пути,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гору Джамбул. В Синегорске интерес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на экскурсии можно узнать, что здесь был обнаружен первый динозавр на Сахалине; где проходила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где был найден уголь. Здесь же самобытный музей, в который вкладывают душу местные жители», — поделил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Экскурсии проводятся круглогодично, внести коррективы в расписание может погода, записываться нужно заранее, позвонив по номеру 210-310, или оставив заявку на сайте <https://taplink.cc/cooltour65>. Там же можно узнать о других интерак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акциях, к примеру, аудиоэкскурсиях, проводимых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사할린 주민, 2022년 12월에 평균 12만 7000 루블리 이상 벌었다

러시아 통계청이 2022년 12월의 근로임금을 공개했다. 결과 사할린 주민들이 평균 12만 7천 루블리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무엇보다 새해 상여금과 보너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2022년 11월에 사할린주 평균 근로 임금은 9만 7,600루블리였다.

극동지역에서 2022년 12월에 사할린주보다 평균 임금이 높았던 지역은 추코트카 자치구가 19만 3,900 루블리, 야쿠치야가 14만 900 루블리, 캄차트카가 13만 6천 100 루블리, 마가단주가 15만 6천 700 루블리로 집계됐다.

##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заработали в среднем более 127 тыс. рублей в декабре 2022 года

Росстат опубликовал статистику по зарплатам в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2022 года. По его результатам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в среднем заработали по 127 тыс. рублей, сообщили в ведомстве.

Такой скачок, скорее всего, связан с выплатой новогодних премий и бонусов. Для сравнения,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составила всего 97,6 тыс. рубл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декабре 2022 года больше, чем на Сахалине, заработали на Чукотке (193,9 тыс. рублей), в Якутии (140,9 тыс. рублей), на Камчатке (136,1 тыс. рублей) и в Магадане (156,7 тыс.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казывает услуги по переводу документов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 т.д.)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ПМЖ. Обращаться в редакцию (Чехова, 37) с 10.00 до 14.00, пятница с 10.00 до 12.00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